

國公食邑三千戶食實封一千戶仍勅有司襄事贈諡曰光正公申命吊誄以八月二十日葬于鎮江縣西昌支北麓

銘 曰

遷兮四世功臣開戟門兮食簪 暉天爐兮鑄縉紳一吒兮万万雷一吹兮 王將相功名富貴自古如

積善有素宜克昌厥後幻身勞兮雖人石銘其壽

(二) 崔珙墓誌

維歲次甲寅五月朔壬申二十五日丙申高麗國金紫祿大夫參知政事吏部尚書判戶部事太子少保致仕崔珙墓誌公諱琪溟州人也曾祖曰 曹侍郎平章事祖曰孝溫爲 禮部郎中父曰衡 郎知制誥樞密院副使丁 女 子也有 男 曰思 官受大倉署丞令爲順和縣令女適刑部員郎文 倫先 公而逝公生而穎異已有 牛之量 之 叙爲良 醜合同正以有 安東 超拜行 都監 而爲承 軍器 禮賓遷授權知開門祇 上聞其 太都護府判官 爲寶不 如嬰兒三年有成一邑 上聞其 爲監察御史朝 爲之 夫 而 有立志 閣門副使累 吏部員 郎 九爲郎官者四官刑部兵部左 司吏部 是也廷司 少卿 禮部 郎出 守忠州 未 自徵遷廷爲寧湖鎮副使二州 送迎悲喜之 攀轅 而 或引領 相望 何其得人心 以及代蒞之 忽有 之悲 刑部郎中未幾 司宰少卿 數月餘階加大 將作少監俄廷吏部 郎 及壬辰三月爲樞密院右副丞宣 鳳陛 龍 其揖讓周 之禮爲當時縉 紳 次也 當 爲樞密院副使贊皇猷而爲左散騎常侍入南 爲 司空登 爲知門下遷資爲 參知政事吏部 書判戶部事 所歷階 於朝 無金紫六大 公自 位至於 作祖之光 十有年之 哀榮終始 司謂 享年 病 于第 聞之 勅有司 其山爲

銘

以仁澤物 之龍 節奉 雪壑之 登鳳閣永 千 鏡懸車 最樂 年 俄窮公之富貴善始 善終芳名不 萬古 銘于石永 幽

報 告

宮南池와 土器

洪 思 俊

우리의 先祖들은 生活居住를 自然에 順應하고 自然을 사랑하였으며 自然에 符合하도록 居住의 周圍를 造營하고 生活하였던것을 遺蹟地에서 찾아볼수 있다. 個人의 家園을 만드러서 花園에 池沼를 파고 山을 造範 하여 小自然에 起居하는 風習이 있었음을 볼수 있으며 國王 또한 宮城內 에 庭苑을 造成 한것이 歷代國權이 交替한다하더라도 이 自然을 사랑하였던 것을 記錄에서 찾아볼수 있는 것이다. 이 造苑의 記錄을 보면 가장 最初로 苑圍를 만드렸던 것은 百濟에서도 武王이라 할것이고 다음 新羅에는 太宗武烈왕이 三國을 統一한後 文武王에 와서 비로소 穿池를 하였다는 記錄이 三國史記에 보인다. 즉 文武王十四年二月에 宮內에 穿池造山하고 花卉를 심고 珍禽奇獸를 길렀다는 것이다. 이 穿池造山한地 點은 果然 지금에 어느 곳일까 東京通志卷七 宮室條에 보면 臨海殿이란 項에 孝昭王丁酉(六年)九月에 이곳에서 群臣의 宴會를 열었다고 하였다. 孝昭王丁酉(697年)九月宴群臣於此

다음에는 臨海殿이 있는곳이 宮門이며 穿地한 것과 十二峯을 만들고 꽃심고 禽獸들을 기른 곳이 지금의 雁鴨池라고 하였다. 그 西가 臨海殿인데 礎石들이 남아있으며 天柱寺가 百步에 가까이 있다. 新羅때 宮城內의 內佛堂이라 하였다.

文武王甲戌(十四年)於宮內. 穿地積石爲山. 凡十有二峯種花卉養珍禽今所謂雁鴨池者是也. 基西. 卽臨海殿. 尙有礎砌散委. 而天柱寺址百步而近. 寺羅時內佛堂亦宮門也.....

지금 臨海殿이 있는 東儀 範池한 池岸屈曲이 巧妙한 雁鴨池가 文武王十四年에 穿地한 것을 알겠다. 한가지 添付할 말은 지금 稱號 雁鴨池는 梅月堂詩四遊錄에 題目 安夏池旧址라 는 詩가 있는데